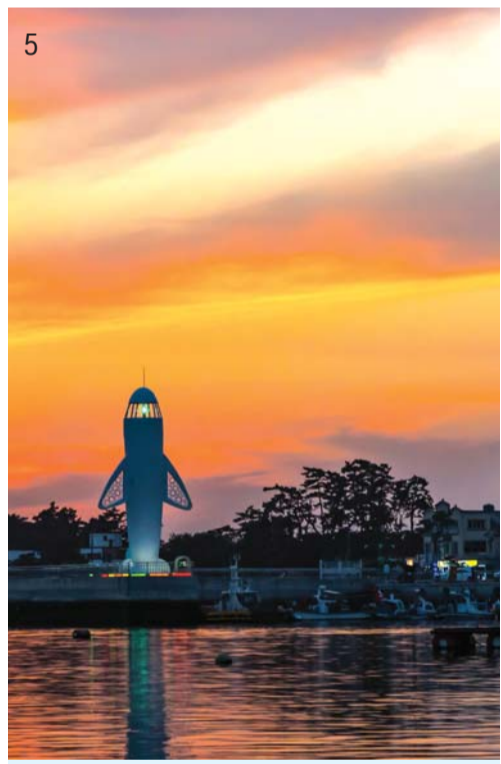


맛·멋·흥 가득 머금은 여름 여행지 무안으로 떠나요

新 남도 택리지 무안

무안은 한여름에 영산강과 갯벌, 하얀 연꽃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여행 일번지'이다. 무안갯벌 세발낙지와 돼지 짬뽕구이 등 '무안 5미'(味)는 여행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7월 25~28일에는 회산백련지에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을 주제로 23번째 연꽃축제가 열린다. 한여름 무안의 멋과 맛, 흥을 찾아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동양 최대 10만평 연못 '회산백련지'
280m 백련교 포토존서 인증샷
툰머리·홀통 해수욕장 무더위 '씩'
도리포해변 일출일몰 장관 한눈에
뽕낙지·추어탕으로 건강도 챙겨



1. 매년 여름이면 연꽃 세상이 펼쳐지는 10만평 규모의 회산백련지
2. 무안 회산 백련지 '온대 식물원'
3. 무안을 낚시골목 '현경화타운'이 선보이는 낚시코스요리
4. 현경면 '서당골'의 뚝배기 추어탕
5. 해질녘 툰머리항 등대 (사진=무안군)

회산백련지와 곳곳에 펼쳐진 해수욕장 명소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회산백련지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이곳은 연못 크기가 10만 평에 달해 동양 최대로 꼽힌다.

'회산(回山)'은 마을이름이다. 일로읍 북우리에 위치한 연지는 과거 일제시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평범한 저수지였다. 1955년 여름, 인근 마을 주민이 저수지 가장자리에 백련 12주를 구해다 심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에서 열두 마리의 학이 저수지에 내려와 앉는 꿈을 꾸었다. 그 모습이 마치 백련이 피어있는 모습과 같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꽃은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8월이면 만개한다. 진흙 속에서 자라는 정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순결', '청순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수심에 따라 꽃이 피는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기간을 잘 맞추면 다양한 연꽃을 모두 만나볼 수도 있다.

하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백련(白蓮)'은 흥련처럼 일시에 피지 않고 7~9월 사이 일사구이래 보일 듯 말 듯 숨어서 피어난다. 이곳 백련은 늦게까지 자라며 잎과 꽃, 뿌리, 줄기가 다른 지역 백련보다 크다.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 빛으로 개화하지만 연한 분홍 빛을 띠다가 다 자라면 순백의 백련이 된다.

회산백련지에는 백련 외에도 수련, 가시연꽃, 흥련, 애기수련, 노랑어리연 등 30여 종의 연꽃과 50여 종의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매기와 붕어,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들도 물속을 헤엄쳐 다닌다. 다양한 물속 식물들을 보다가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넓은 백련지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백련교를 건너면 된다. 280m 길이의 백련교를 건너 보면 초록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색다른 기분도 느낄 수 있다.

저수지의 둘레는 4km 정도. 한 바퀴 도는데만 1시간은 족히 걸린다. 연못 주위로 산책로와 쉼터도 갖춰져 있다. 다리 곳곳에는 백련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돼 있다. 곳곳에 포토존이 있어 인증샷을 담기에도 좋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 특성상 백련지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곳곳에 안개분수를 설치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련지 한켠에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이 눈에 띈다. 백련의 희고 우아한 곡선미를 건물 외형에 담아낸 수상유리온실이다. 1층 연홍보관과 전시관을 둘러본 후 2층 식물원으로 올라가면 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 열음을 동동 띄운 연방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도 마련돼 있다. 유리온실에서 내려다본 백련지도 색다르다.

무더운 여름철 회산백련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개장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파도풀과 유아풀, 어린이풀, 성인풀 등 5개의 풀과 놀이대, 워터터널 등 물놀이 기구가 갖춰져 있다. 다양한 연꽃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족나들이 장소로 최고다.

무안에는 이름난 해수욕장이 의외로 많다. 여름철마다 인근 광주와 대도시권 피서객들이 무안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찾아오곤 한다. 대표적인 곳이 망운면 피서리에 위치한 툰머리 해수욕장이다. 툰머리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간조때 펼쳐지는 끝없이 넓은 백사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며 여름바다를 즐기고 보호함으로 지정된 해송 숲이 해변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

다워 이기는 무안 뽕낙지와 추어탕 낚지의 고장 무안에 왔으니 당연히 낚지를 만나고 가야 한다. 낚지를 원 없이 보고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낚시골목'을 찾았다. 이곳에는 40여 개의 낚시요리 전문점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낚시를 구입해 가기도하고 다양한 낚시요리를 맛보고 갈수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택배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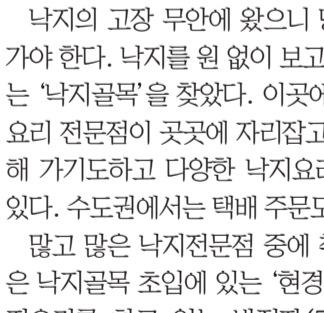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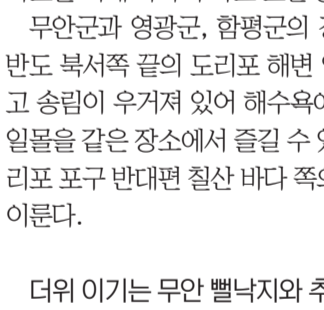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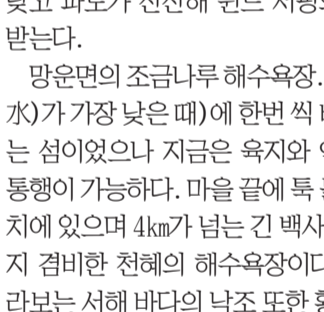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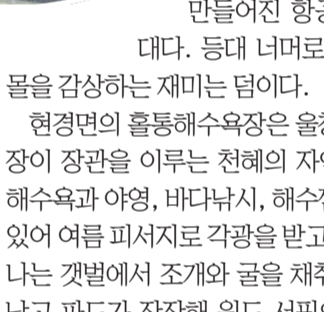
많고 많은 낚시전문점 중에 취재진이 낙점한 곳은 낚시골목 초입에 있는 '현경화타운'. 30년간 낚시요리를 하고 있는 박정자(73)씨와 아들 김현

람한다. 해질 무렵에는 툰머리항에 나가 볼만 하다. 툰머리항에는 독특한 등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 모양의 조형 등대다. 등대 너머로 붉게 물든 명품 일몰을 감상하는 재미는 덩이다.

현경면의 홀통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과 긴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는 천혜의 자연발생적 유원지다. 해수욕과 야영, 바다낚시, 해수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와 굴을 채취할 수 있고 수심이 낮고 파도가 잔잔해 윈드 서핑의 최적지로도 평가 받는다.

망운면의 조금나루 해수욕장. 본래 조금(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아무 때나 통행이 가능하다. 마을 끝에 툰 불거져 나온 듯한 위치에 있으며 4km가 넘는 긴 백사장에 울창한 송림까지 겸비한 천혜의 해수욕장이다. 조금나루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낙조 또한 황홀하다.

무안군과 영광군, 함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해제반도 북서쪽 끝의 도리포 해변 역시 모래사장이 길고 송림이 우거져 있어 해수욕에 적당하다. 일출과 일몰을 같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며 특히 도리포 포구 반대편 칠산 바다 쪽의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룬다.



람한다. 해질 무렵에는 툰머리항에 나가 볼만 하다. 툰머리항에는 독특한 등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 모양의 조형 등대다. 등대 너머로 붉게 물든 명품 일몰을 감상하는 재미는 덩이다.

현경면의 홀통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과 긴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는 천혜의 자연발생적 유원지다. 해수욕과 야영, 바다낚시, 해수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와 굴을 채취할 수 있고 수심이 낮고 파도가 잔잔해 윈드 서핑의 최적지로도 평가 받는다.

망운면의 조금나루 해수욕장. 본래 조금(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아무 때나 통행이 가능하다. 마을 끝에 툰 불거져 나온 듯한 위치에 있으며 4km가 넘는 긴 백사장에 울창한 송림까지 겸비한 천혜의 해수욕장이다. 조금나루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낙조 또한 황홀하다.

무안군과 영광군, 함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해제반도 북서쪽 끝의 도리포 해변 역시 모래사장이 길고 송림이 우거져 있어 해수욕에 적당하다. 일출과 일몰을 같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며 특히 도리포 포구 반대편 칠산 바다 쪽의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룬다.

무안에는 이름난 해수욕장이 의외로 많다. 여름철마다 인근 광주와 대도시권 피서객들이 무안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찾아오곤 한다. 대표적인 곳이 망운면 피서리에 위치한 툰머리 해수욕장이다. 툰머리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간조때 펼쳐지는 끝없이 넓은 백사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며 여름바다를 즐기고 보호함으로 지정된 해송 숲이 해변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

다워 이기는 무안 뽕낙지와 추어탕 낚지의 고장 무안에 왔으니 당연히 낚지를 만나고 가야 한다. 낚지를 원 없이 보고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낚시골목'을 찾았다. 이곳에는 40여 개의 낚시요리 전문점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낚시를 구입해 가기도하고 다양한 낚시요리를 맛보고 갈수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택배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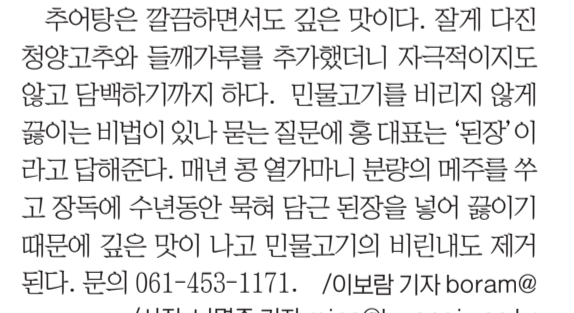
많고 많은 낚시전문점 중에 취재진이 낙점한 곳은 낚시골목 초입에 있는 '현경화타운'. 30년간 낚시요리를 하고 있는 박정자(73)씨와 아들 김현

람한다. 해질 무렵에는 툰머리항에 나가 볼만 하다. 툰머리항에는 독특한 등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 모양의 조형 등대다. 등대 너머로 붉게 물든 명품 일몰을 감상하는 재미는 덩이다.

현경면의 홀통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과 긴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는 천혜의 자연발생적 유원지다. 해수욕과 야영, 바다낚시, 해수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와 굴을 채취할 수 있고 수심이 낮고 파도가 잔잔해 윈드 서핑의 최적지로도 평가 받는다.

망운면의 조금나루 해수욕장. 본래 조금(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아무 때나 통행이 가능하다. 마을 끝에 툰 불거져 나온 듯한 위치에 있으며 4km가 넘는 긴 백사장에 울창한 송림까지 겸비한 천혜의 해수욕장이다. 조금나루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낙조 또한 황홀하다.

무안군과 영광군, 함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해제반도 북서쪽 끝의 도리포 해변 역시 모래사장이 길고 송림이 우거져 있어 해수욕에 적당하다. 일출과 일몰을 같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며 특히 도리포 포구 반대편 칠산 바다 쪽의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룬다.



사를 하고, 술에 놀러붙은 누룽지에는 물을 부어 누룽지로 불렀다가 마지막에 먹으면 된다.

추어탕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다. 잘게 다진 청양고추와 들깨가루를 추가했다니 자극적이지도 않고 담백하기까지 하다. 민물고기를 비리지 않게 끓이는 비법이 있나 묻는 질문에 흥 대표는 '된장'이라고 답해준다. 매년 콩 열가마니 분량의 매주를 쓰고 장독에 수년동안 묵혀 담근 된장을 넣어 끓이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고 민물고기의 비린내도 제거된다. 문의 061-453-1171. /이보람 기자 boram@/사진=나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신양파크호텔

www.shinyangparkhotel.com